

KIA 임창용 22년만에 '호랑이 선발'



안방서 KT 상대 등판
삼성소속 2007년 이후
3946일만에 선발 출전
팻딘 볼펜 이동 뒤 보직 변경

KIA 타이거즈의 24년 차 베테랑 임창용 3946일 만에 선발 타이틀을 쓴다.
KIA 김기태 감독은 19일 삼성과의 홈경기 전에 가진 취재진과의 자리에서 임창용을 20일 kt와의 홈경기 선발로 예고했다.
김 감독은 "임창용이 선발로 나간다. 본인도 던져보고 싶어 한다. 한 번 던져보고 상황을 보겠다. 80개를 던질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임창용은 삼성 시절이던 2007년 9월 30일 현대와의 대구 경기에 이어 3946일 만에 선발 투수로 가장 먼저 마운드에 오른다.

'호랑이 군단' 소속으로는 8085일 만의 선발이다. 임창용은 1996년 5월 31일 광주 LG와의 경기에서 타이거즈 선수로서 마지막 선발 등판을 했다.
KIA는 후반기를 시작하면서 전반기 성적이 좋지 못했던 좌완 팻딘을 중간 계투로 돌리는 승부수를 던졌다. 팻딘이 중간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선발 한 자리에 공백이 생겼고, 그 자리에 임창용이 들어가게 된 것이다.
팻딘의 보직 변경과 함께 임창용은 사실상 선발로 후반기를 준비했다. 앞선 17일 삼성과의 경기에서도 볼펜으로 나와 1이닝만 소화하면서 경기 감각을 조절했다.
'선발 지원자'가 많았지만 김 감독은 코칭 스태프의 추천과 임창용의 의사를 반영해 베테랑을 선발로 낙점했다.
김 감독은 "처음 (임창용 선발에 대한) 보고가 들어왔을 때는 고민했다. 선발을 하고 싶어하는 선수도 많았다. 생각했던 선수 컨디션이 좋지 못하다고 했고, 임창용 본인도 선발로 던지고 싶다고 해서 결정했다"고 말했다.
선발 등판에 맞춰 20일을 기다렸던 임창용도 모처럼 주어진 기회에 기대감을 보였다.
"준비 잘했고, 몸상태도 좋다. 특이 체질이라서 오랜만의

선발이지만 걱정 안 된다"며 웃은 임창용은 "투구수에 맞춰 경기를 하게 된다. 80개를 던질 예정이다. 많은 이닝을 소화하고 싶다"고 언급했다.
1995년 진흥고를 졸업하고 해태 유니폼을 입고 프로 무대에 데뷔한 임창용은 해외 진출을 했던 시간을 제외하고 KBO리그에서 보낸 18시즌에서 3.34의 평균자책점으로 127승 82패 258세이브 19홀드를 기록하고 했다.
한편 20일부터 안방에서 kt를 상대하는 KIA는 임창용을 시작으로 한 승혁-양현종을 선발로 내세워 승리 사냥에 나선다.
/김여울 기자 wool@

'몸에 맞는 볼 팀 2위' 박준태 "아픈 티 내면 안돼요"

덕아웃 T 특특

▲티 내면 안 돼요 = KIA 외야수 박준태는 올 시즌 36경기에서 나와 6개의 몸에 맞는 볼을 기록하면서 13개의 나치완에 이어 바나나나와 공동 2위에 올라있다. 경기 수로 따지면 63경기에 출전한 나치완과 비슷한 수치다. 공이 와도 꺾이지 않는 탓에 몸에 맞는 볼이 많다. 박준태에게도 공은 무섭지만 어떻게든 출루해서 역할을 해야 하는 만큼 피할 수 없다. 지난 18일에도 삼성 양창섭의 공에 허리를 맞았지만, 표정 변화없이 바로 1루로 걸어 나갔다. 박준태는 19일 경기에서 앞서 "아파도 티 내면 안 된다. 사실 여기저기 멍투성이"라고 웃었다.
▲여름에 야구를 해본 적이 없어서 = 무더위에 선수들의 체력이 뚝 떨어지는 7월. 여름은 초보 프로선수들에게 가장

힘든 시간이다. 아마추어 시절과 달리 뻑뻑한 경기 일정을 소화해야 하고 더위까지 겹치면서 신에 선수들은 여름에 고전한다. 사실상 프로에서의 첫해를 보내고 있는 4년 차 중고신인 황인준은 "너무 덥다. 그런데 여름에 야구를 해 본 적이 없어서 어떤지 잘 모르겠다"고 웃었다. 2015년 대졸 신인인 황인준은 입단 첫해 부상으로 6월까지 땀 뒤 군 복무에 나섰다. 그리고 지난 시즌 8월에 전역하면서 프로에서 여름 시즌을 보낸 적이 없다.
▲전화 많이 안 받아야 하는데 = 전화를 받지 않고 싶다는 서재응 투수코치다. 서 코치는 이대진 코치의 1군 복귀와 함께 볼펜 코치로 자리를 옮겼다. 경기 상황에 따라서 볼펜 투수들을 준비시키고 투입하는 게 서 코치의 임무. 아쉬운 전 반기를 보낸 임기영에 이어 20일 임시 선발 자리에 임창용이 들어가게 되면서 긴장감이 높아진 볼펜.
서 코치는 "경기 중에 전화 많이 안 받는 게 내 입장에서

최고다"고 웃었다. 그러면서 "임창용이 4이닝 이상을 소화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좋은 역할을 해주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팍이 두 배로 났어요 = 포수 한승택에게는 더위로 인한 땀에 식은땀까지 더해졌던 아찔했던 순간이었다. 지난 18일 삼성과의 경기에서 헥터와 배터리를 이뤘던 한승택은 2회초 지옥과 천당을 오갔다. 첫타자 강민호를 유격수 땅볼로 돌린 뒤 최영진의 안타가 나오면서 무사 1루. 김상수의 기습 번트 때 한승택이 공을 한번 놓치면서 실책을 기록했다. 한승택의 실책으로 1사 1-2루. "팍이 두 배로 났다"며 당시 상황을 돌아본 한승택은 그러나 웃으면서 2회를 마무리할 수 있었다. 이어진 박해민의 타석 때 유격수에게 공을 던져 베이스에서 벗어나 있던 2루 주자 최영진을 아웃시켰고, 김상수의 도루까지 잡아내면서 이닝을 마무리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임창용

광주 FC, 승점 3점이 필요해

K리그2 21일 부천 원정 ... 최근 4경기 1승3무

프로축구 광주 FC가 '무패행진'의 기세를 이어 승점 3점을 노린다.
광주는 오는 21일 오후 7시 부천종합운동장에서 부천FC1995와 KEB하나은행 K리그2 2018 20라운드 경기를 갖는다. 월드컵 휴식이 동안 짜임새를 더한 광주는 최근 4경기에서 1승 3무를 기록하면서 지지 않는 추구를 해왔다. 4경기 무패행진이지만 승점은 아쉽다. 순위 상승을 위해서는 승리가 필요하다.
광주는 최근 공수에서 좋은 밸런스를 보여주고 있다. 날카로운 공격력과 탄탄한 수비 조직력이 돋보인다.
'에이스' 나상호가 앞선 수위 원정에서도 골맛을 보면서 9골로 득점 선두를 달리고 있고, 정영총-김정환 등이 빠른 발로 측면을 지배하고 있다. 또 수비수로 변신한 두현석의 정확한 크로스와 왕성한 활동량도 큰 힘이다.
처진 공격수 임민혁과 김동현, 최준혁 등 젊은 미드필더들도 중원에서 중심을 잘 잡고 있는데, 광주는 정확한 전진 패스로 달린 후반기를 보내고 있다.
여기에 광주 포백 수비는 여전히 탄탄하다. 노련한 '베테랑 3인방' 박요한-안영규-김태윤에 최근 전역한 이요정도 가세했

다.
문제는 역시 체력이다. 광주는 최근 뻑뻑한 일정과 무더운 날씨에 고전하면서 움직임이 무뎠다.
하지만 이번 원정을 통해 광주는 앞선 부천전 2패를 갱아줘야 한다.
부천은 시즌 전 박진섭 감독이 가장 무서운 상대로 꼽았던 팀이다. 다행히 광주는 후반기 짜임새가 좋아졌고 부천은 하락세를 타고 있다. 현재 8패로 광주(6패)보다 많으며, 경기당 1.42의 실점률을 기록하고 있다.
광주의 '방패' 윤평국과 부천의 새로운 '창' 크리스토폴의 싸움에도 눈길이 쏠린다.
윤평국은 앞선 수원FC전서 슈퍼 세이브 행진을 하며 19라운드 베스트 11에 선정되는 등 좋은 페이스를 이어오고 있다. 수원 삼성에서 부천으로 이적한 크리스토폴은 지난 부산과의 데뷔전에서 멀티골을 기록하며 2-1 승리의 주역이 되었고, 19라운드 MVP에 이름을 올렸다.
든든한 윤평국을 앞세운 광주가 크리스토폴의 발을 묶으며 승점 3점을 가져올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이 모습 이제 못본다니...

아이스댄스 민유라-캠린 해체...이유 놓고 진실 공방

2018 평창동계올림픽에 출전했던 피겨스케이팅 아이스댄스 국가대표 민유라-캠린조가 해체했다. 해체 이유를 두고 민유라와 캠린이 각기 다른 주장을 펼쳐 논란을 빚고 있다.
캠린은 18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을 통해 "민유라의 결정으로 지난 3년간의 활동을 마무리하게 됐다.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까지 출전하려 했지만, 안타깝게 함께 활동하지 못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캠린의 해체 선언 직후 민유라는 SNS를 통해 엇갈린 주장을 했다.
그는 "많은 분의 연락을 받고 캠린이 SNS에 글을 올린 것을 알게 됐다"라고 언급했다.
민유라는 이어 "지난주까지 캠린과 새 프로그램을 훈련했는데, 캠린이 사전 운동을 하지 않고 훈련에 임하는 등 나태한 모습을 보였다"라고 폭로한 뒤 "캠린에게 준비가 될 때까지 훈련을 중단하자고 했는데, 아직 변화가 없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광주 셔틀콧 천재 AG 된다

안세영 16세 최연소 태극마크 ... 단식 개인전 출전

배드민턴 천재 소녀 안세영(16·광주체고1)이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배드민턴 국가대표팀에 승선했다.
19일 대한배드민턴협회에 따르면, 안세영은 성지현(27·인천국제공항)과 함께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배드민턴 여자 단식 개인전에 출전한다.
안세영은 광주체중 3학년이던 지난해 12월 국가대표 선발전을 최연소로 통과해 태극마크를 달았다.
그는 시니어 무대에서 경험을 쌓으며 한국 배드민턴의 미래로 성장하고 있다. 특히 5월 세계여자단체선수권대회에서는 4경기 전승으로 대표팀의 동메달 획득에 기여했다.
배드민턴협회는 2020 도쿄올림픽을 내다보고 유망주 위주로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출전자 명단을 작성했다고 밝혔다.
여자단식 단체전에는 개인전 멤버인 만 언니 성지현, 막내 안세영과 함께 전주이(23·화순군청), 이세연(23·KGC인삼공사)이 합류한다.
여자복식에서는 대표팀의 기동으로 성장한 동갑내기 듀오 이소희(24·인천국제공항)-신승찬(24·삼성전기)에게 쏠린 기

대가 크다. 이소희는 장예나(29·김천시청)와, 신승찬은 정경은(28·김천시청) 등 언니들과 콤비로 실력을 끌어 올렸다.
지난 5월 뉴질랜드오픈과 6월 말레이시아 오픈에서 3위에 올라 상승세인 김혜린(23·인천국제공항)-공희웅(22·전북은행)도 여자복식 개인전에 출전한다.
채유정(23·삼성전기)과 백하나(18·정송여고3)는 여자복식 단체전에 참가한다.
'여고생 돌풍'의 주역 백하나는 이유림(18·장곡고3)과 여자복식 개인전에 출전할 가능성도 있었지만, 이유림이 지난 6월 국내 대회에서 무릎 십자인대 수술을 받으면서 홀로 단체전에만 합류하게 됐다.
에이스 손완호(30·인천국제공항)와 허광희(23·삼성전기)는 남자 단식 개인전 대표로 나선다. 이동근(28·MG세마을고)과 하영웅(26·국군체육부대)은 남자 단식 단체전에 합류한다.
남자복식은 서승재(21·원광대)-김원호(19·삼성전기), 최솔규(23·요넥스)-강민혁(19·삼성전기)이 개인전에 출격하고, 단체전에는 이재현(22·원광대)과 박경훈(20·한국체대)이 함께 땀을 흘린다.
혼합복식은 서승재-채유정, 최솔규-신승찬이 대표로 나선다.
/연합뉴스